



김원 'alcoholic'



비콘 '분리 3개의 다리'



기유경 'Thanks giving'

'인간은 먹어야 산다'

전북도립미술관 '음식사냥' 전
근원부터 사회성까지 녹여내
전시는 내년 2월 4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음식사냥' 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일상에서 무심코 먹는 음식들에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해 흥미로움을 전한다.

전시는 '음식'을 주제로 미술가 개인의 삶이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음식의 근원에 대한 질문부터 음식에 대한 예술적인 상상력 그리고 음식에 얽힌 사회성과 폭력성까지 녹여내고 있다.

기유경·김원·김진욱·박성민·박은주·박철호·비콘·성병희·성연주·신재은·심혜정·심홍재·양광식·이보름·이호철·조경희·하루k·하영희·한운정·황인선 등 20명의 초대미술가들은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다채로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음식사냥전은 '인간은 먹어야 산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능이자 숙명이다. 배가 고파서 먹고, 더러는 눈으로 즐기기도 한다. 좋은 사람과 나누는 음식은 행복하다. 하지만 음식을 사냥하는 일은 살아있는 것을 해하고 취하기 때문에 다분히 폭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풀어내고자 했다.

'음식이란?'에서는 음식재료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비콘 작가의 '분리 3개의 다리'는 다리 하나가 절단된 송아지를 촬영한 기록 영상물. 태어날 때부터 다리 하나가 잘못 났던 송아지 3마리를 연명하고 있는 송아지를 농장 주인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작품은 생명의 존엄성과 경제논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음식 상상'에 참여한 작가들은 음식 자체를 낯설게 응시하여 창의적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해석한 작품들을 내놨다. 기유경의 'Thanks giving'은 생명의 근원인 곡식이나 과일, 채소 등의 씨앗을 소재로 삼고 있다.

대상을 반복적으로 나열하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병치하는 등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원초적인 조형 언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화법은 일견 단순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리듬과 시적인 운율을

지니고 있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또 하나의 섹션 '얽히고설킨 사람살이'에선 음식으로 얽힌 사회성과 살기 위해 음식사냥을 멈출 수 없는 인간의 폭력성을 되묻는다. 김원 작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관계에 착안한 커뮤니티 연작 중 '알콜릭'을 선보인다.

이는 본인이 직접 체득한 다양한 인물군상을 수집하고 분류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직장 내 상하관계, 남녀성차별, 의견대립 등 사회 구성원들의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관계성을 함축적으로 그렸다. 작품에는 경쟁과 불확실한 현실을 인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음식에 대한 예술적 아포리즘이라며, 일상에서 만나는 음식을 낯설게 맞출 수 있는 신선하고 자유로운 현대미술 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음식사냥을 멈출 수 없는 인간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더 적은 폭력으로 살아가는 자발적 자기반성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내년 2월 4일까지. /정해은 기자

내년도 '덕진갤러리 36.5' 무료대관 신청자 모집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산이)는 지역 예술가 및 개인에게 다양한 전시기회를 제공을 통해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2018년 덕진 갤러리 36.5 무료대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덕진 갤러리 36.5는 지난 8월 덕진구청 청사 로비를 시민들이 1년 365일 언제나 일상 속에서 쉽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재단장한 전시공간으로 관공서 특유의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36.5°C의 따뜻함으로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관장소는 덕진구청 1층 로비에 위치한 덕진 갤러리 36.5(전체면적 42.32㎡)로 대관대상은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 지역주민·학생의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 창작물의 전시를 희망하는 자,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관비용은 무료이다.

대관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시별 대관기간은 작품 반입 및 철수 기간까지 포함하여 3주 내외로 가능하다. 전시장르는 회화, 서예, 사진, 조소, 공예 등 시각예술에 한하며 구청 자체 기획전시 일정 및 대관일정 중복 시 대관기간은 조정될 수 있고 정치·종교적인 목적의 전시나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는 대관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 주민자치팀 ☎ 063-270-6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천년, 소리를 울리다

전북도립국악원 송년국악큰잔치
20일 소리문화전당 모악당서 무대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전통예술의 흥과 멋으로 울려 퍼지는 송년국악큰잔치 '천년, 소리를 울리다'를 연다.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한해의 역량이 총 결집된 전통예술 공연의 진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의 첫 무대는 무용단의 '삼고무'로 꾸며진다. 삼고무는 네모진 틀 위에 3개의 북을 걸어놓고 북을 치며 춤을 추는 것으로 변화가 많고 화려하다.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일출의 바다'는 해가 떠오르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의 바다를 표현한 곡으로 희망을 북돋우는 힘을 지닌다.

국악관현악과 가요의 만남은 '꽃밭에서'를 부른 조관우의 솔로 무대로 채워진다. 이어 조봉달 창극단장부터 아들 조관우, 손자 조현까지 3대가 함께하는 '엄마야 누나야' 무대가 펼쳐진다. 소리와 노래 그리고 피아노의 선율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국악관현악단과 양금협주곡 '바람의 노래'는 알타이어족인 몽골 전통민요 선율을 들려준다. 곡은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말의 모습과 바람의 소리를 담아낸다. 또 국

악관현악단과 목금협주곡 '종달새'는 빠른 템포로 묘사한 무마니아의 민요로, 종달새의 울음소리와 특징적인 모듬을 목금 특유의 음색으로 표현한다.

또 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중 일부분을 선보일 '청년 이성계, 출병하라'는 이성계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떠돌며 도탄에 빠진 세상에 눈을 떠 출병하는 대목. 관현악단의 연주에 맞춰 창극단이 합창한다.

모듬북 협주곡 '타'는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다이내믹한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잘 어울리는 곡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바람의 전설'은 전주대 태권도학과 학생들과 무용단의 합동 공연으로 역동적인 가락과 춤사위를 펼칠 예정이다.

국악원 관계자는 "송년국악큰잔치는 한 해 동안 도민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펼치는 공연으로, 국악원의 다양한 레퍼토리 중에서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작품들을 선보인다"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국악원 홈페이지(www.kukakwon.jb.go.kr)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올해 전주시 예술상 7명 선정... 시상식은 29일 전주 라마다호텔서

2017년 한해 전주시 문화예술계를 빛낸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는 15일 예술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문화부문의 전일환씨 등 7개 부문, 7명의 '제28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광의 제28회 예술상 수상자는 △문학 부문 전일환 △음악 부문 오정선 △국악 부문 김세미 △무용 부문 김지호 △사진 부문 염재형 △연극 부문 정경선 △건축 부문 김주

식씨가 각각 선정됐다.

전주시 예술상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문학, 음악 등 10개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예술인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6시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한 여행도시 NO.1, 완주를 소개합니다.

완주가 좋다 그래서 간다

정경 산수의 빼어난 자연경관 // 명승고찰의 숨겨진 아름다움
비옥한 토양이 안겨주는 최상의 농특산물 // 로컬푸드 1번지다운 안전한 먹거리
완전한 고을! 으뜸도시 완주의 자랑 완주 9경 8품 8미

완주는 힐링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병소!

엄지척! 완주 대표 투어상품~

- ★ 투어코스**
 - 삼례문화예술촌 & 비비정
 - 삼례책마을
 - 중식타임
 - 고산자연휴양림 & 고산문화공원
 - 대한민국 스테마박물관
- ★ 상품소개**
 - 역사, 문화, 힐링, 건강한 먹거리 등 완주의 매력을 한번에 만끽할 수 있는 맛 있고 멋 있는 최고의 완주투어코스
 - 맛있는 식사 (건강한 로컬푸드 먹거리) - 새참수레 2호점,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 신나는 레저타임 - 투아바이크, 에코어드벤처, 밀리터리파크
- ★ 관광지 소개**
 -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완주 문화예술의 중심 (삼례문화예술촌 & 삼례비비정마을)
 - 책과 카페가 어우러진 책 문화의 새로운 요람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 자연 속 치유 공간 (고산자연휴양림&고산문화공원)
 - 온라인 게임 몰로 체험한다 (밀리터리파크)
 - 자연친화적 가족단위레포츠 (에코어드벤처)
 - 한국의 숲속사가 담긴 (대한민국 스테마박물관)

9경: 대둔산도립공원, 고산자연휴양림, 모악산, 대이수역전5대야수, 송산사찰문화길, 삼례문화예술촌 장미마당, 동성문정사계곡, 위북사지리봉문묘, 송취봉정사